

헨켈, <순간의 접착> 전시회 개최

글로벌 생활·산업용품 생산기업 헨켈(대표 파루크 아리그)은 <갤러리 루프>와 함께 국내 대표적인 유명작가 4명이 참여하는 헨켈 이노아트 프로젝트 (Henkel InnoART Project) 전시회를 3월29일부터 5월24일까지 개최한다.

헨켈 이노아트 프로젝트는 헨켈의 핵심 기업가치인 혁신(Innovation)을 모티브로 다각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메세나 활동으로 2회를 맞으며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작가 4명을 선정해 전시를 기획·진행한다.

전시회에는 최슬기 작가와 최성민 작가(부부)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 <슬기와 민>, <윤동천>, <홍성민> 등 4명의 인기작가들이 참여해 헨켈이 생산하는 접착제, 세제 등을 주요 작품소재로 활용해 기업과 예술의 만남을 <순간의 접착> 주제 아래 영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형식의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예술 작품들로 선보일 예정이다.

헨켈은 전시회 외에도 온라인 갤러리, 작가 도록 등 다양한 지원 프로모션을 통해 참여 작가들의 예술적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화학저널 2012/03/21>